

정부,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천 명 배정

- 2025년 대비 14.1% 확대 배정으로 농·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대 -

법무부(장관 정성호),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), 해양수산부(장관 직무대행 김성범)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.9만 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.

이번 도입 규모는 전국 지자체의 수요조사, 관계부처(농식품부·해수부)의 수요 전망, 전문가 연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5년 배정인원(9.6만 명) 대비 14.1% 확대한 것입니다.

2026년 배정인원 109,100명은 전국 142개 지자체의 2만 8천여 농·어가에 94,100명*, 공공형 계절근로와 시범사업, 긴급 인력 수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 탄력분 15,000명**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* 농업 계절근로자(고용주) : 87,375명(27,190명) / 어업 계절근로자(고용주) : 6,725명(1,598명)

** (예비 탄력분, 1.5만 명) 공공형(5,400명), 시범사업(1,000명), 긴급 수요 대비(8,600명)

공공형 계절근로* : 농업(130개소 확정), 어업(4개소 잠정), 임업(1개소, 시범)

* 농·수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·어가에 日 단위로 노동력을 제공

참고로, 2025년 운영 현황은 142개 지자체에 95,596명(공공형 3,117명 포함)을 배정하였고, 11월 말 기준 80,617명이 입국하여 운영률은 84.3%, 이탈률은 0.5%(395명/80,617명)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

※ 2024년 운영률 84.5%(57,269명/67,778명), 이탈률 1.6%(936명/57,269명)

정부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배정 확대를 통해 농·어촌 일손 부족

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,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와 권익증진, 인권보호에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법무부 체류관리과	책임자	팀 장	전동균 (02-2110-4170)
		담당자	사무관	박정석 (02-2110-4087)
	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	책임자	과 장	강혜영 (044-201-1711)
		담당자	사무관	김동우 (044-201-1721)
	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	책임자	과 장	한지용 (051-773-5851)
		담당자	사무관	박혜진 (051-773-5471)



붙임 : 2026년 지자체별(광역)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(공공형 제외)

(단위: 명)

지자체	농업		어업		합계	
	고용주	근로자	고용주	근로자	고용주	근로자
강원도	3,287	10,409	11	37	3,298	10,446
경기도	1,725	6,540	0	0	1,725	6,540
경상남도	3,134	8,246	15	87	3,149	8,333
경상북도	5,283	13,796	0	0	5,283	13,796
대구광역시	96	255	0	0	96	255
부산광역시	0	0	33	59	33	59
세종특별자치시	48	91	0	0	48	91
울산광역시	0	0	0	0	0	0
인천광역시	13	32	0	0	13	32
전라남도	4,468	15,214	1,419	5,880	5,887	21,094
전라북도	3,286	11,920	2	18	3,288	11,938
제주특별자치시	354	1,210	0	0	354	1,210
충청남도	3,405	13,654	118	644	3,523	14,298
충청북도	2,091	6,008	0	0	2,091	6,008
총 계	27,190	87,375	1,598	6,725	28,788	94,100